

5070 시니어의 금융 리터러시 변화와 시사점

목 차

1. 초고령·초장수사회, 시니어 금융 리터러시의 중요성	01
2. ‘금융이해력 조사’를 통해 본 시니어의 금융 리터러시	05
3. ‘소비자역량지수’를 통해 본 시니어의 금융 리터러시	12
4. 일본 시니어의 금융 리터러시와 최신 교육 사례	18
5. 시사점 및 5070 시니어 리터러시 강화 방안	21

1. 초고령·초장수사회, 시니어 금융 리터러시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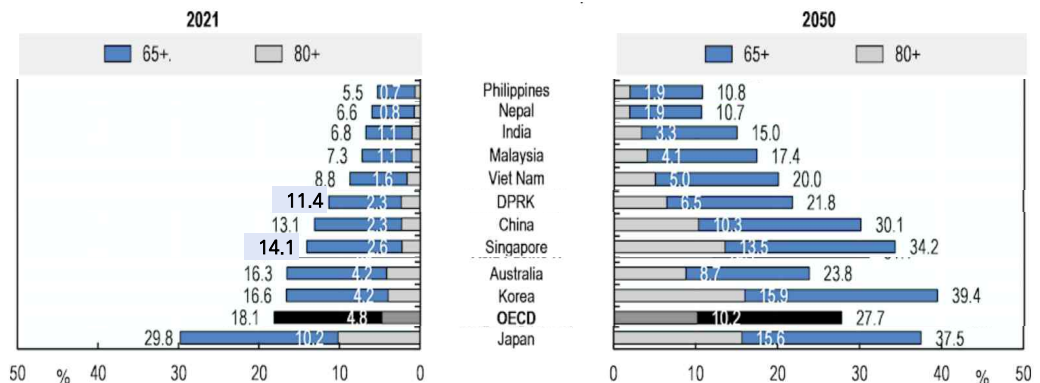
□ 초고령·초장수사회로 진입한 세계 많은 국가에서 고령자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오랜 기간 다양한 역량을 요구받는 데 이 중 금융 리터러시(Financial Literacy)가 특히 중요

○ UN 인구기금(UNFPA)에 따르면 '22년에서 '50년까지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0%에서 16%로, 평균 기대수명은 73.6세에서 78.1세로 급속히 증가할 전망¹⁾

- 이에 따라 일본·독일·프랑스 등 22개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²⁾, 우리나라 역시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

- 특히 '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9.4%, 80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9%에 이르러 세계 최고 고령 국가로 접어들 전망([그림 1-1] 참조)

[그림 1-1] 아시아태평양국가의 65세+, 80세+ 인구 비율(2021년 vs. 2050년)



출처: OECD(2022) 'Ageing |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22'에서 연구자가 보완 및 편집

1) 유엔인구기금(UNFPA) [//www.unfpa.org/events/international-day-older-persons](https://www.unfpa.org/events/international-day-older-persons). '24.6.9 검색

2)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란 만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22개국이란 모나코, 일본,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독일,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체코, 에스토니아, 세르비아, 덴마크, 산마리노,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헝가리(나무위키, 2024.6.9. 참고).

- 초고령·초장수사회에서는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필수역량인 리터러시(literacy, 문해) 능력도 단순한 ‘문자 문해’에 그치지 않고 긴 시간 동안의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다양한 차원의 리터러시로 확장됨
 - 특히 ‘금융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소득과 소비 간 불균형이 예전에 비해 더 길어지고 더 다양한 양상을 띠며 금융환경 변화도 급격해지기 때문
 - 금융 리터러시(Financial Literacy)란 건전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재정적 안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식,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의 조합을 의미(OECD/INFE, 2023)³⁾

〈표 1-1〉 5070의 2024년 인구 현황 및 2030 인구 전망

연령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4년 인구 현황* (비율)**	8,726,213명 (17.0%)	7,725,856명 (15.1%)	6,445,312명 (12.6%)
’30년 인구 전망***	약 820만명	약 850만명	약 900만명

*행정안전부, 2024.5. 주민등록 인구통계(jumin.mois.go.kr) 기준

** 총인구 51,277,347명 중 비중

*** 6년 뒤 현재 인구의 순이동 및 사망률 등을 감안하여 연구자가 개괄적으로 추정함

- 5070 시니어의 경우 금융 리터러시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은 물론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한정란, 2023; 한진수, 2023; 조혜진, 2024 등)
- 첫째, 금융 리터러시는 시니어의 경제적 자립을 도움. 정기적 소득원이 줄어든 퇴직 후에는 저축과 투자 관리 능력이 필수적인데 시니어들이 금융 상품을 이해하고 현명한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음

3) OECD/INFE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 금융 리터러시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이 노후의 금융자산, 주거, 증여, 상속 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남(양덕순, 2022)
- 둘째, 금융 리터러시는 사기 및 금융 범죄로부터 시니어를 보호함. 고령자는 최신 금융 기술이나 상품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 사기의 주요 대상이 되는데, 금융 리터러시가 높은 고령자는 금융 사기 위험을 예방하여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함
- 셋째, 금융 리터러시는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임. 재정적 안정을 바탕으로 시니어가 건강 관리,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이는 사회 복지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국가 재정 비용을 감소시킴
- 2030년에는 이들 인구수가 2,500만을 넘길 전망으로(〈표 1-1〉 참조) 금융 리터러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재정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지금 5070 시니어의 금융 리터러시 강화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들의 리터러시 수준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검토해 이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교육 추진이 필요
- 금융 리터러시의 측정 및 이의 결과를 반영한 근거 기반의 금융교육 실행은 그간 OECD/INFE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 추진해 옴(김성숙 2013)
-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부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전 국민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조사’를 2년 주기로 시행하여 그 결과를 금융 정책 수립 및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음
- 또한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 2010년부터 4년 주기로 발표하는 한국의

소비자역량지수에는 소비자의 3대 주요 역량 중 하나로 금융역량을 측정하여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본 고는 5060 시니어의 금융 리터러시를 주요 데이터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발굴하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 리터러시 강화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함

○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의 대표적 금융 리터러시 측정조사로 볼 수 있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금융이해력 조사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역량 지수 중 금융역량(소비자재무역량)조사를 중심으로 시니어의 현재 금융 리터러시 수준 및 변화 상황을 살펴봄

○ 둘째, 일본의 대표적인 금융 리터러시 측정조사인 금융홍보위원회의 금융 리터러시 조사를 중심으로 일본 시니어 금융 리터러시 현황 및 쟁점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발굴함

- 일본은 지난 '05년 초고령사회 진입 후 20년이 경과한 세계 최고 장수국가로⁴⁾ 노후 생활의 금전적 불안에 대해 그 어느 국가보다 미리 겪고 대응해오고 있어 우리나라 금융 리터러시 향상 및 향후 대응에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

○ 셋째, 앞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060 시니어 금융교육이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를 제시함

□ 본 고의 결과는 현재 5060 시니어의 금융 리터러시 수준을 구체화·객관화하는 자료를 제공하며, 이들에 대한 데이터 기반 금융교육 수립에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함

4) 일본은 '21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9.8%, 80세 이상 인구 비율도 10.2%에 이르는 초고령·초장수 국가(<그림 1> 참조)

2. ‘금융이해력 조사’를 통해 본 시니어의 금융 리터러시

2.1. 금융이해력 조사의 개요 및 주요 측정 내용

□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리터러시 측정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조사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측정·발표하는 ‘전 국민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조사’로 국민의 금융 지식, 태도, 행위를 평가하여 금융 교육과 정책 수립에 활용

□ 동 조사의 연혁, 특성 및 주요 내용 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연혁 : 2016년부터 통계청 승인통계로 한국은행·금감원 공동 추진⁵⁾

○ 조사 특성 및 대상

- 조사 특성: 경제·금융교육 글로벌 협력기구인 OECD/INFE 제정 기준 반영
- 조사 대상: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 2천여 가구⁶⁾
- 조사 방법: 전국 표본조사 대상 가구 직접 방문 1:1 면접조사
- 생산 주기: 2년(최근 조사: '22년 8.29~11.30)

○ 주요 측정 내용(〈표 2-1〉 참조)

- (1)금융 지식의 측정
 - 기초 금융개념 이해(이자율, 인플레이션, 분산투자 등의 개념 이해도)
 - 금융 상품 이해(예금, 대출, 보험, 투자 상품 등의 구조와 위험 이해도)

5) 2012년 한국은행, 2014년 금융감독원이 각각 실시하였으며, 2016년부터 통계청 승인을 얻어(통계작성 승인 제920016호) 공동으로 실시(관련 보도자료, 2016.9.7. 공보 2016-9-9호)

6) 2016년 1,824가구 조사, 2022년 2,400가구 조사 (95% 신뢰수준, 목표허용오차 $\pm 2.0\%$ p)

- (2)금융 태도의 측정

- 재무관리 태도(재무 계획과 예산 관리에 대한 태도)
- 위험관리 태도(보험 가입 및 위험 분산에 대한 태도)

- (3)금융 행위의 측정

- 저축 및 투자(저축 습관, 투자 행위 및 금융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
- 대출 및 부채 관리(대출 이용 및 상환 계획에 대한 행동 패턴)

○ 측정 결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측정연도 다음 해에 발표

〈표 2-1〉 금융이해력 조사 측정 내용 및 영역별 세부 내용과 배점

영역	분 류	배점	비 고
금융 지식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1	정답은 1점, 그 외는 0점
	이자 개념의 이해	1	
	단리 계산	1	
	복리 개념	1	
	위험과 수익간 관계	1	
	인플레이션 의미	1	
	분산투자 개념	1	
	소 계	7	
금융 행위	가계예산 관리	1	가계예산 관리 1점
	적극적인 저축활동	1	저축 경험 있는 경우 1점, 그 외 0점
	신중한 구매	1	매우 동의 또는 동의의 경우 1점, 그 외 0점
	청구대금 적기 지급	1	
	평소 재무상황 점검	1	
	장기 재무목표 설정	1	전문적인 금융정보 또는 자문 이용 2점, 광고, 브로셔 또는 일반정보 이용 1점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2	
	가계수지 적자 해소	1	차입에 의존 0점, 그 외 1점
	소 계	9	
금융 태도 ¹⁾	저축보다 소비 선호	1.33333	매우 동의=0점, 동의=0.25점, 보통=0.5점, 대체로 반대=0.75점, 완전 반대=1점
	미래보다 현재 선호	1.33333	
	돈은 쓰기 위해 존재	1.33333	
	소 계	4	
금 융 이 해 력 (합 계)		20	

주: 1) 2020년과 비교하여 금융태도의 총배점이 감소(5점 → 4점)하고 산출방식이 변경(매우 동의 0.2점 → 0점, 동의 0.4점 → 0.25점, 보통 0.6점 → 0.5점, 대체로 반대 0.8점 → 0.75점)

출처: 한국은행·금감원(2023) 2022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3.3.29.

2.2. 금융이해력 조사의 주요 결과 및 시니어의 금융 리터러시

- 금융이해력 조사에서 나타난 시니어의 최근('18년~'22년)⁷⁾ 금융 리터러시는 100점 만점에 60점대이나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표 2-2〉 참조)

〈표 2-2〉 5060 시니어의 최근('18~'22년) 금융이해력 종합 결과

연도	평균 점수 및 변화			
	연령 전체	50대	60대	70대
2018	62.2	63.1	59.6	54.2
2020 ⁸⁾	65.1 (+2.9)	67.0 (+3.9)	64.1 (+4.5)	54.8 (+0.6)
2022 ⁹⁾	66.5 (+1.4)	67.0	64.4 (+0.3)	61.1 (+6.3)

출처: 한국은행·금감원, 2018/20/22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참조 연구자가 재정리

- 50대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100점 만점에 67.0점으로('22년 기준) 전체 평균(66.5점)보다 높으며, '18년에서 '20년 크게 상승 후 유지하고 있음
 - 전체 평균이 '18~'22년 4.3점 상승한 것에 비해 50대는 3.9점 상승에 그침
- 60대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100점 만점에 64.4점으로('22년 기준) 전체 평균(66.5점)보다 살짝 낮으며, 최근 4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70대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100점 만점에 61.1점으로('22년 기준) 전체 평균(66.5점)보다 많이 낮으나, 최근 2년 이내에 큰 폭 상승함
 - 지난 4년간 6.9점 상승하여 연령 전체 평균이나 타 연령대 상승을 앞지름

7) OECD/INFE가 2018년부터 기존 조사 내용을 크게 개선하고 조사 표본수도 확대(1,820개→2,400개) 함에 따라 2016년과 2018년 조사의 직접적 비교가 곤란하다 하여(한국은행, 금감원 보도자료, 2019.1) 2018년 조사 결과부터 활용

8) 2022년과의 비교를 위해 2022년 금융이해력 조사에서 재산정한 점수를 기재함

9) 2024.3.7. OECD 국가와의 상대 비교를 위해 생산한 「2023 OECD/INFE*」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와는 약간의 점수 차이가 있음(점수 산정방식)

- 금융 리터러시 영역¹⁰⁾별로 시니어의 수준을 살펴보면 금융 지식은 최근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 태도도 타 연령에 비해 높으나, 금융 행위 부분이 아직 미흡한 상태(<표 2-3> 참조)

〈표 2-3〉 5060 시니어의 최근('18~'22년) 금융이해력 영역별 결과

연도	평균 점수 및 변화											
	연령 전체			50대			60대			70대		
	지식	행위	태도	지식	행위	태도	지식	행위	태도	지식	행위	태도
2018	65.7	59.9	61.3	66.5	60.6	62.8	61.6	56.0	63.2	50.2	52.3	63.1
2020 ¹¹⁾	71.3	63.8	58.9	73.1	66.9	59.1	71.2	61.4	60.4	54.7	53.0	61.1
2022	75.5	65.8	52.4	77.2	65.6	52.6	72.8	62.5	53.8	65.5	59.8	57.6

출처: 한국은행·금감원, 2018/20/22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정리

- 시니어의 금융 지식을 살펴보면, OECD가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하다고 제시한 최소한의 목표점수¹²⁾ 71.4점에는 거의 도달
- 50대의 금융 지식 점수는 77.2점으로('22년 기준) 전체 평균(75.5점)보다 높으며, 지난 4년간 전체연령보다 더 크게 상승함(9.8점 상승 vs. 10.7점)
 - 60대의 금융 지식 점수는 72.8점으로('22년 기준) 전체 평균(75.5점)보다 낮으며 특히 인플레이션이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분산투자 관련 지식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표 4> 참조). 다만 지난 4년간 11.2점이나 상승함
 - 70대의 금융 지식 점수는 65.5점으로('22년 기준) 전체 평균(75.5점)보다 매우 낮으나, 지난 4년간 15.3점 상승하여 연령별로는 상승 폭이 가장 큼

10) (금융지식)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

(금융행위) 건전한 금융·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동양식

(금융태도) 현재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의식구조

11) <표 2>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 수치를 2022년에 재산정한 기준으로 조정함. 하여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2021년에 발표한 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12) Minimum target score, 2020년 기준 금융지식 71.4점, 금융행위 66.7점, 금융태도 60.1점

〈표 2-4〉 연령별 금융지식 문항별 결과('22 금융이해력 조사)

	2022년	연령대별					
		20대 ²⁾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금 용 지 식	75.5	74.9	78.2	79.3	77.2	72.8	65.5
인 플 레 이 셴 의 미	80.8	81.3	83.3	85.7	82.1	77.8	67.6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78.3	77.4	82.5	81.6	79.0	72.7	74.4
이 자 개 념 의 이 해	93.8	94.8	95.3	94.5	95.7	93.6	83.2
단 리 계 산	75.9	76.1	77.3	81.3	77.1	73.7	63.3
복 리 계 산	41.4	39.1	45.3	44.7	43.8	38.8	31.9
위험과 수익간 관계	88.2	88.0	89.7	91.7	88.8	85.8	81.8
분 산 투 자 개 념	70.4	67.6	74.4	75.7	73.7	67.1	56.5

- 시니어의 금융 행위를 살펴보면, OECD가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하다고 제시한 최소한의 목표점수 66.7점에 미달
- 50대의 금융 행위 점수는 65.6점으로('22년 기준) 전체 평균(65.8점)보다 낮으며, 지난 4년간 전체연령보다 낮게 상승함(5.9점 상승 vs. 5.0점)
 - 60대의 금융 행위 점수는 62.5점으로('22년 기준) 전체 평균(65.8점)보다 낮으며 특히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장기 재무목표 설정, 신중한 구매 등이 낮음(〈표 5〉 참조). 다만 지난 4년간 전체연령보다 높게 6.5점 상승함
 - 70대의 금융 행위 점수는 59.2점으로('22년 기준) 전체 평균(65.8점)보다 매우 낮으나, 지난 4년간 7.5점 상승함

〈표 2-5〉 연령별 금융 행위 문항별 결과('22 금융이해력 조사)

	2022년	연령대별					
		20대 ²⁾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금 용 행 위	65.8	66.2	70.0	67.8	65.6	62.5	59.2
가 계 예 산 관 리 노 력	80.6	73.1	89.9	88.6	85.3	74.6	62.8
적 극 적 인 저 축 활 동	97.8	95.4	99.5	99.2	99.0	98.4	92.9
신 중 한 구 매	50.3	48.5	53.5	48.7	48.7	52.2	51.5
청 구 대 금 적 기 납 부	68.6	66.5	71.0	70.0	68.2	70.1	63.6
평 소 재 무 상 황 점 검	55.7	55.8	55.7	57.2	56.8	54.6	51.2
장 기 재 무 목 표 설 정	48.0	48.0	53.7	50.3	51.1	39.8	41.7
정 보 에 입 각 한 금 용 상 품 선택	50.8	59.8	60.4	54.7	47.0	40.1	35.8
가 계 수 지 적 자 해 소 ³⁾	89.1	88.9	85.3	87.3	87.4	92.7	97.7

- 시니어의 금융 태도를 살펴보면, OECD가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하다고 제시한 최소한의 목표점수 60.1점에 비해 미흡하나 전체 연령의 금융 태도보다는 높음
- 50대의 금융 태도 점수는 52.6점으로('22년 기준) 전체 평균(52.4점)보다는 높으나, 지난 4년간 큰 폭으로 낮아짐(전체 8.9점 감소 VS. 10.2점 감소)
- 60대의 금융 태도 점수는 53.8점으로('22년 기준) 전체 평균(52.4점)보다 높으며 특히 저축·절약 태도가 높음(〈표 6〉 참조). 다만 최근 9.4점 감소함
- 70대의 금융 태도 점수는 57.6점으로('22년 기준) 전체 연령 중에서 가장 높음. 또한 지난 4년간 금융 태도의 변화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2-6〉 연령별 금융 태도 문항별 결과('22 금융이해력 조사)

	2022년	연령대별					
		20대 ²⁾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금 용 태 도	52.4	48.9	50.9	53.0	52.6	53.8	57.6
저축보다 소비 선호 ⁴⁾	52.3	45.3	50.3	53.8	53.8	54.9	58.2
미래보다 현재 선호 ⁴⁾	59.2	60.3	59.7	58.5	57.3	59.2	61.6
돈은 쓰기 위해 존재 ⁴⁾	45.7	41.0	42.6	46.8	46.6	47.2	53.1

주) 지문과 반대. 즉 점수가 높을수록 저축, 미래를 선호하고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2.3. OECD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국제 조사 주요 결과 및 시니어의 금융 리터러시

- '22년 OECD 디지털 금융이해력 조사에서 나타난 시니어의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는 100점 만점에 40점~30점대로, 금융이해력 전반이나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점수로 나타남(〈표 2-7〉 참조)
- 디지털 기술이 금융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OECD /INFE가 '22년부터 디지털 금융이해력을 별도 측정하기를 권고¹³⁾

-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는 전체연령에서 42.9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해 연도 금융 리터러시 평균 66.5점이나 OECD 국가 평균 55.0점에 비해서 낮은 편(OECD, 2023)
- 예상할 수 있는 바대로 50대와 60대 시니어의 디지털 금융 이해력도 낮지만, 특히 70대의 경우 디지털 금융 이해력이 매우 낮음

〈표 2-7〉 연령별 디지털 금융이해력 결과⁽²²⁾

전체	연령별					
42.9점	20대 ¹³⁾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44.7	45.0	44.2	43.1	41.1	36.0

주) OECD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 측정 결과,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3.7. 등 참조, 재정리

□ 이상의 결과를 소결하면 다음과 같음

- 50대는 금융 지식이 높으나 금융 행위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특히 최근 금융 태도, 즉, 미래 준비에 대한 의식이 약함
- 60대는 금융 지식과 태도는 나쁘지 않으나 금융 행위면이 부족한데 특히 장기재무목표 설정 등 백세 장수 시대 대응 행위가 부족
- 70대는 금융 태도는 좋으나 금융 지식 및 행위,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에서 5060대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금융 소비자교육은 물론 관련 금융권 기업 측면의 대응책 개선도 중요

13)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는 일반 금융 리터러시와 유사하게 지식/행위/태도로 구성되었고, 측정 방법도 유사. 다만 내용 측면에서 디지털 금융 보안 및 안전 대응 문항이 다수 포함

3. ‘소비자역량지수’를 통해 본 시니어의 금융 리터러시

3.1. 소비자역량지수 조사의 개요 및 주요 측정 내용

□ 증거 기반 소비자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생산되는 한국소비자원의 3대 소비자정책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역량지수(Consumer empowerment index)는 우리나라 성인 소비자가 소비생활에서 갖추어야 하는 역량 수준을 지식, 태도, 실천 측면에서 측정·진단하여 계량화한 것¹⁴⁾

□ 동 조사의 연혁, 특성 및 주요 내용 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연혁: '07년 기초연구 및 '10년부터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에서 4년 주기로 생산되며 '14년 큰 폭의 변화를 거쳐 '18년, '22년 생산

○ 조사 특성 및 대상

- 조사 특성: EU의 소비자정책전략(Consumer Policy Strategy)에서 소비자가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의 총체로 제시된 이후, 지식, 태도, 기술 영역은 물론 재무/거래/시민참여 등 소비생활의 주요 측면을 포괄

- 조사 대상: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개인 4,000명('22년 기준)

- 조사 방법: 성·연령·지역별 제공근 비례 할당 후 1:1 면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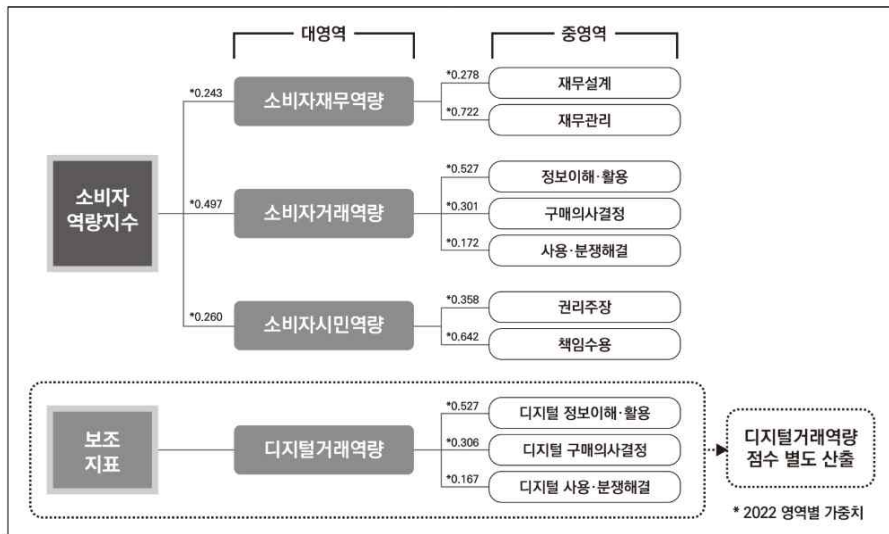
- 생산 주기: 4년(최근 조사: '22년 6.13~7.19)

○ 주요 측정 내용: [그림 3-1] <표 3-1> 참조

14)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으며 데이터 사용 목적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누구나 원자료(raw data)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

- 내용 영역으로는 금융 리터러시와 관련된 소비자재무역량 24문항을 포함해 소비자거래역량, 소비자시민역량 등 총 75문항으로 측정되며, 소비자재무역량은 다시 재무설계와 재무관리로 이분되어 각각 12문항으로 구성
- 구성 영역으로는 지식, 태도, 실천(기술)을 각각 25문항으로 구성

[그림 3-1] 소비자역량지수의 측정 체계('22년 기준)



〈표 3-1〉 소비자역량지수의 내용 영역 및 구성 요인별 측정 문항 구성

구분	내용 영역			구성 요인			소계	계
	대영역	중영역	측정	지식	태도	실천		
소비자 역량 지수	소비자 재무 역량	재무설계	재무설계, 수입·지출관리, 노후설계	4	4	4	12	24
		재무관리	저축·투자, 신용카드·부채 관리, 보험관리	4	4	4	12	
	소비자 거래 역량	정보이해·활용	정보탐색·선별, 표시·정보 이해, 정보통신기술 활용	3	3	3	9	27
		구매의사결정	가격, 계약·거래조건, 품질 비교	4	4	4	12	
		사용·분쟁해결	분쟁해결, 안전한 사용	2	2	2	6	
	소비자 시민 역량	권리주장	소비자관련 법·제도의 이해, 소비자권리인식 및 권리사용	4	4	4	12	24
		책임수용	윤리적소비, 지속가능소비, 소비자참여	4	4	4	12	
	계			25	25	25	75	75

출처: 한국소비자원 오수진·이보한(2022), 2022 소비자역량지수 보고서

3.2. 소비자역량지수의 주요 결과 및 시니어의 금융 리터러시

- 소비자역량지수의 3영역 중 금융 리터러시와 관련된 소비자재무역량 점수를 통해 시니어의 최근('18년~'22년) 리터러시 수준을 살펴보면 <표 3-2> 참조, 100점 만점에 60점대이며 이는 '보통'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거래역량이나 시민역량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표 3-2> 5060 시니어의 최근('18~'22년) 소비자역량지수 종합 결과

구분	2018년*			2022년			
	전체	50대	60세+	전체	50대	60대	70세+
소비자역량지수	65.5	66.0	60.4	66.2	68.4	62.4	56.4
소비자재무역량	65.7	67.5	63.4	66.9	69.0	65.7	61.3
지식	69.3	71.5	65.2	61.6	65.0	60.2	52.1
태도	72.3	72.7	72.0	73.3	73.7	72.8	73.1
실천	55.7	58.4	53.21	65.8	68.5	64.0	58.8
재무설계	65.6	67.5	62.5	67.8	70.3	67.1	61.0
재물관리	65.8	67.5	64.0	66.6	68.6	65.1	61.5
소비자거래역량	66.0	65.9	58.5	65.9	68.5	60.2	52.5
소비자시민역량	64.4	64.6	60.4	66.1	67.7	63.6	59.1

*2018년에는 60대와 70대를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았음

출처: 한국소비자원, 2018/2022 소비자역량지수 결과, 보고서를 참조 연구자가 재정리

- 50대의 소비자재무역량 점수는 100점 만점에 69.0점으로('22년 기준) 전체 평균(66.9점)보다 높으며, 지난 4년간 1.5점 상승
 - 금융이해력조사 점수와 이를 비교해보면 절대적 점수는 소비자재무역량 점수가 조금 더 높으나(2.0점) 50대 시니어의 점수가 전체 연령 평균보다 높다는 점과 최근 상승하는 추세라는 점은 같음
- 60대의 소비자재무역량 점수는 100점 만점에 65.7점으로('22년 기준)

전체 평균(66.9점)보다 낮음

- 2018년 조사에서는 60대와 70대를 별도의 조사 대상으로 두지 않아 2018년과 2022년의 점수 비교가 어려우나 60대 역시 소비자재무역량이 상승 추세인 것으로 추측됨

○ 70대의 소비자재무역량 점수는 100점 만점에 61.3점으로('22년 기준) 전체 평균(66.9점)보다 매우 낮음

- 이러한 점수는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임('22년 61.1점)

□ 소비자재무역량 중 지식, 태도, 실천 영역별로 시니어의 수준을 살펴 보면 실천 역량이 최근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태도도 타 연령에 비해 높으나, 재무 지식 부분이 최근 약해진 상태(<표 3-2><표 3-3> 참조)

〈표 3-3〉 소비자역량지수 내 소비자재무역량의 지식/태도/실천 측정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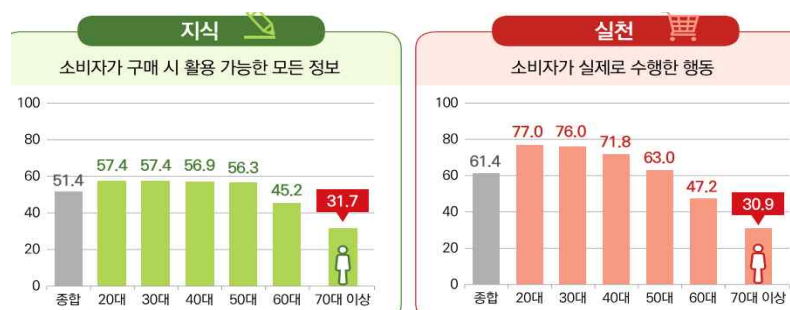
소비자재무역량 지식 문항(8)		소비자재무역량 태도 문항(8)		소비자재무역량 실천 문항(8)	
1	재무설계	1	재무설계	1	재무설계
2		2		2	
3		3		3	
4		4		4	
5	재무관리	5	재무관리	5	재무관리
6		6		6	
7		7		7	
8		8		8	

- 소비자재무역량 중 지식, 태도, 실천의 점수를 살펴보면 '18년에는 태도>지식>실천 순이었던 것이 '22년에는 태도>실천>지식 순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실천 점수의 상승과 함께 지식 점수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
- 세부 내용을 보면 지식영역에서 금융환경변화가 크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후설계, 부채, 실손보험 등에서 점수가 낮아졌고, 실천영역에서는 최근 경기 저하 등으로 인해 저축 및 절약 등의 실천이 높아졌을 수 있음
- 이를 금융이해력조사 결과와 단순 비교하면 금융 태도에 있어 시니어가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나, 금융 지식과 실천의 결과는 '22년의 경우 상이함. 즉, 금융이해력 조사에서는 금융 지식이 높고 상승 추세나 금융 행위가 낮았음
 - 다만 구체적인 측정 내용이 달라 이의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음
- 소비자재무역량 중 하위 2개 내용 부분인 '재무설계'와 '재무관리'에 대한 시니어의 수준을 살펴보면 재무설계 역량이 좀 더 높으며, 특히 재무설계 역량은 지난 4년간 크게 상승함(<표 3-2><표 3-3> 참조)
 - 50대의 재무설계역량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3점으로('22년 기준) 전체 평균(67.8점)보다 높으며, 지난 4년간 2.8점 상승
 - 재무관리역량 점수도 100점 만점에 68.6점으로 전체 평균(66.6점)보다 높으나 지난 4년간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
 - 60대의 재무설계역량 및 재무관리역량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살짝 낮음
 - 70대의 재무설계역량 및 재무관리역량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낮으나 소비자거래 역량 및 시민역량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3.3.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주요 결과 및 시니어의 금융 리터러시

- 소비자역량지수 역시 '22년부터 디지털 소비자역량을 별도로 측정하였는데 60대가 40점대, 70대가 30점대로 나타나, 이 역시 소비자역량 전반에 비해 크게 낮은 점수로 나타남([그림 3-2] 참조)

[그림 3-2] 디지털 소비자역량의 연령별 차이('22년 기준)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역량지수로 보는 성인 디지털 소비자역량, 인포그래픽, 2023.2.

- 이상의 내용을 소결하면 다음과 같음

- 50대는 종합 소비자역량 및 하위 소비자재무역량이 전체연령 평균보다 높고 최근 상승하고 있어 고무적임. 다만 최근 노후설계, 보험관리 등에 대한 재무설계 및 재무관리 지식이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 필요
- 60대는 종합 소비자역량 및 하위 소비자재무역량에서 전체연령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특히 관련 지식 영역의 점수가 낮으므로 초고령·초장수 시대의 재무설계 방법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 등 개선 필요
- 70대는 종합 소비자역량 및 소비자재무역량이 매우 낮으나 최근 크게 개선되고 있어 고무적임. 다만 재무관리 방법에 대한 지식과 실천 능력 향상, 디지털 역량 전반에 개선이 필요

4. 일본 시니어의 금융 리터러시와 최신 교육 변화 사례

4.1. 일본 시니어의 금융 리터러시 개괄

- 일본에서도 금융홍보중앙위원회가 지난 '16년부터 3년 주기로 18세~79세 성인 3만명을 대상으로('22년 기준) 금융 리터러시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측정 내용 및 결과가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름¹⁵⁾
- 금융 리터러시 측정 문항은 총 53문항인데 이 중 40%는 OECD 및 미국 금융감독기구(FINRA)의 리터러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일본의 경제금융 여건에 맞는 차별적 질문으로 구성¹⁶⁾
 - 영역 구성: 정답이 있는 금융 지식 25문항(O, X)과 금융 관련 행동 특성·사고 방식을 묻는(5점 리커트) 28문항으로 구성
 - 내용 구성: 일본의 '금융 리터러시 맵(map)¹⁷⁾'에 기반하여 가계 관리, 생활 설계, 금융 지식, 외부 지식 활용 등 4개 분야로 구성(<표 4-1> 참조)

〈표 4-1〉 일본의 금융 리터러시 지식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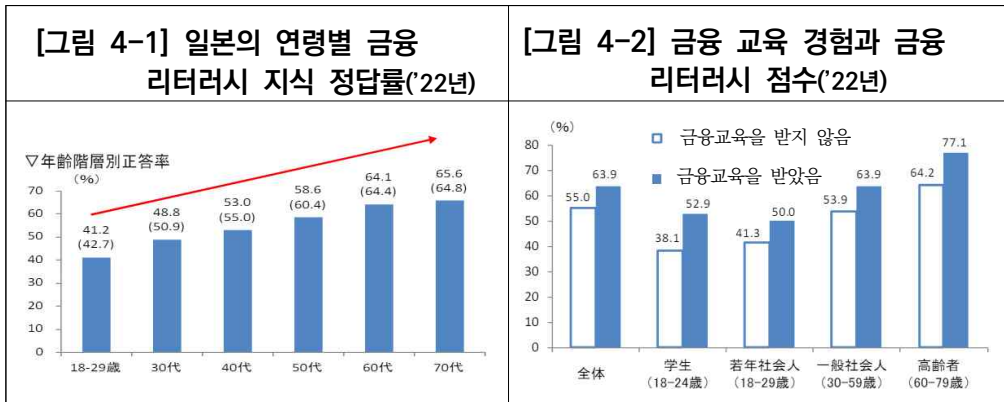
금융 리터러시 맵 분야		2016年	2019年	2022年
가계 관리		51.0	52.3	50.7
생활 설계		50.4	50.8	49.0
금융 지식	금융거래의 기본	72.9	74.0	73.3
	금융·경제의 기초	48.8	49.8	49.3
	보험	52.5	54.4	53.4
	대출 크레딧	53.3	54.4	52.5
	자산 형성	54.3	54.8	54.7
외부의 지식 활용		65.3	65.6	64.8
합계		55.6	56.6	55.7

15) 金融広報中央委員会(2022), 金融リテラシー調査(2022年)のポイント, 2022.7.5.

16) 이는 OECD/INFE가 금융 리터러시의 측정을 각국의 경제문화 상황 차이를 반영해 차별적으로 구성하기를 권고한 측면이 큼

17) 생활 스킬로서 최소한 몸에 익혀야 할 금융 리터러시 내용을 구체화하여 연령층별로 제시한 것. 일본 금융경제교육추진회의(사무국 금융홍보중앙위원회)에서 만들

- 측정 결과 금융 지식 정답율은 55.7%이며(22년 기준) '19년 소폭 증가했다 '22년 다시 소폭 감소. 특히 가게 관리 및 생활 설계 지식이 낮아짐
- 일본 금융 리터러시 지식 측면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연령이 높을수록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그림 4-1) 참조. 즉,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금융 지식 점수가 높아 70대의 경우 정답률이 65.6%에 이름



4.2. 일본의 리터러시 기반 시니어 교육 추진 사례

- 일본은 금융 리터러시 조사를 통해 금융교육을 경험한 사람이 리터러시가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그림 4-2 참조) 금융교육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정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독립기구 설치를 이루어냈음
- 18세~79세 성인 전반에서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의 금융 리터러시 정답률은 63.9%로 금융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55.0%에 비해서 8.9%가 높았고, 특히 18세~24세 학생과 60~79세 고령자 집단에서 금융교육의 경험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높게 나타남

- 이에 따라 일본은 금융교육 경험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금융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¹⁸⁾을 개정하여 '24년 4월 독립법인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J-FLEC)¹⁹⁾를 설치
- '22년 조사결과 금융교육 경험을 한 일본 국민이 약 7%로 나타났는데, 향후 5년간 이를 현재의 3배 가까운 20%까지 증대시킬 것을 목표로 함
 -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는 금융홍보중앙위원회(사무국:일본은행), 전국은행협회, 일본증권업협회가 발기인이 되었고, 소비자교육기구 등 민간협력을 포괄하며, '적절한 금융서비스의 이용 등에 기여하는 금융 또는 경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교수 및 지도(금융경제 교육)를 추진하는 것'을 미션으로 함
 - 2024년 8월 본격적으로 금융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오픈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은퇴 연령의 시니어를 중요 교육 집단으로 설정하고 있음. 즉, 교육 대상 연령층을 금융 리터러시를 참고하여 1)초등학생 2)중·고등학생 3)대학생 및 신참 사회인 4)성인 5) 베테랑 사회인, 5개 대상으로 구분 (<표 4-2> 참조)

〈표 4-2〉 일본 금융경제교육기구의 연령층별 금융교육

연령층	배울 수 있는 주요 내용
소학생	돈의 기초
중학생·고교생	성인이 되기 전에 배워두고 싶은 돈 이야기
대학생·신입사회인 (~20대)	사회인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돈 이야기, 트러블 방지
중견 사회인 (30~40대)	미래를 향해 알고 싶은 돈 이야기, 외부 금융 지식 활용
베테랑 사회인 (50대 이상)	은퇴 전후에 알아두고 싶은 돈 이야기, 연금, 사회보험 등

출처: 일본금융경제교육기구 <https://www.j-flec.go.jp>

18) 「金融サービスの提供及び利用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19) 영어명 Japan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rporation, <https://www.j-flec.go.jp>

5. 시사점 및 5070 시니어 리터러시 강화 방안

5.1. 요약 및 시사점

- 우리나라 금융이해력 조사 및 소비자역량지수 조사에 나타난 시니어 금융 리터러시 결과에서의 긍정적인 점은 50대 60대의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보다 높거나 거의 근접해 보통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과 시니어 전체 리터러시가 최근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
 - 이는 최근 5070 시니어들의 교육 수준, 경제력 향상 등에 따른 이들의 금융 인식 수준 향상에서 기인했을 것이나 금융 리터러시에 대한 정책적 강조와 금융교육의 노력도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 비중이 높고 초고령사회의 중심축인 50대 시니어의 금융 지식이 OECD 금융 리터러시 최소목표 수준에 도달하고 소비자재무 실천 역량도 전체 연령보다 월등히 높아 고무적임
 - 또한 70대 시니어도 현재까지는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금융 리터러시가 낮지만 최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25년이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70대에 진입하기 시작하므로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이 전망됨
- 이와 반대로 시니어 금융 리터러시 실태를 통해 나타난 우려되는 점은 디지털 금융·시장 환경 적응과 관련된 리터러시 및 초고령·초장수사회 적응에 관련된 리터러시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 '디지털 금융 이해력' 측정이나 '디지털 소비자역량' 측정 모두에서 시니어의 점수가 절대적·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격차가 큰 내용 영역을 중심으로 현재보다 훨씬 더 큰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확인

- 이러한 결과는 5070의 디지털 역량 전반이 일반 국민 디지털 역량보다 낮은 것과(과기정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같은 맥락이지만 이것이 ‘디지털 금융’ 혹은 ‘디지털 재무관리’로 특정화될 때 그 격차가 더욱 커진다면 금융영역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대응 필요성을 높이게 됨
 - 관련하여 ‘2022 디지털 소비자역량’ 결과에서 5070 시니어와 일반 국민과의 상대적 격차는 디지털 역량 격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의 개선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 못지않게 ‘디지털 금융’ ‘디지털 재무관리’의 리터러시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냄²⁰⁾
 - 또한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이 가속화될 것을 예상할 때 70 시니어를 중심으로 한 포용적 금융 정책의 강화 필요성도 높다고 할 것임
- 한편, 초고령·초장수 사회에서는 은퇴 설계 및 관련 금융 상품의 신중한 선택 역량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영역의 리터러시가 낮아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
- ‘금융이해력 조사’와 ‘소비자역량지수’ 소비자재무역량 모두에서 은퇴 관련 금융 행위가 타 영역에 비해 낮았는데, 특히 생애 전환기의 중심에 있는 60대 시니어가 장기재무목표 설정과 관련된 금융행위 및 관련 금융상품 선택 역량이 낮아 개선 필요
 - 또한 전반적으로 금융 리터러시가 높은 50대 시니어의 경우도 최근 금융 태도, 특히 미래 준비에 대한 의식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의 원인 및 개선방안의 모색 필요

20) 2022 디지털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는 절대값이 매우 낮게 나타나 일반 국민과 5070 시니어와의 격차 비교가 실효가 낮음

5.2. 5070 시니어 금융 리터러시 강화 방안

- 5070 시니어의 금융 리터러시 향상에 미치는 금융경제교육의 가치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향후 몇 년 동안 금융경제교육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필요
 - 일본 금융홍보위원회 조사 결과(2022) 일상에서의 금융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학생층과 고령층에서 금융교육이 금융 리터러시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으므로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 및 고령사회로의 적응이 본격화되는 2030년까지 시니어를 금융교육의 핵심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금융 리터러시에 기반한 금융교육 추진 체계를 정비 및 강화할 필요
 - 현재 우리나라 ‘금융 역량 맵’(<표 5-1> 참조)에서는 금융교육 대상을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5개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서 ‘중장년기’를 세분화할 필요
 - 현재 중장년기는 ‘30세 이상~65세 미만’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상이한 집단을 포괄하고 있어 교육의 목표 설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중년기(30~40대)’와 ‘장년기(50~64세)’로 구분하고 특히 장년기 금융교육에서 은퇴 설계 관련 내용을 강화
 -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일본이 별도의 금융교육기구를 독립적으로 신설하여 리터러시 평가 및 관리, 자료 개발, 강사 양성, 교육관련 기구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이루어내는 것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추진 체계를 정비할 필요도 있음

-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 중심의 금융교육협의회가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금감원에 금융교육 전담 부서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 등 금융교육협력체가 구성되어 있으나 전국민 대상 금융 리터러시의 측정을 중심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교육을 체계화하는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는 금융교육 추진의 구심점을 더욱 단단하게 할 것

〈표 5-1〉 우리나라 금융역량 맵

[우리나라 일반 금융역량지도]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Primary	High	Youth 대학	Adult	Retired
대분류 (역량 분야)	중분류	생애주기 단계				
		초등	중·고등	·사회초년 (신입사원)	성인 (30세 이후)	은퇴 이후
		금융역량 태동기	금융역량 성장기	금융역량 확대기	금융역량 성숙기	금융역량 유지기
I. 가계재무관리	1. 수입과 지출	P-I-1	H-I-1	Y-I-1	A-I-1	R-I-1
	2. 가계부 작성	P-I-2	H-I-2	Y-I-2	A-I-2	R-I-2
	3. 예산 짜기	P-I-3	H-I-3	Y-I-3	A-I-3	R-I-3
	4. 결제 수단	P-I-4	H-I-4	Y-I-4	A-I-4	R-I-4
	5. 합리적 의사결정	P-I-5	H-I-5	Y-I-5	A-I-5	R-I-5
II. 자산관리	1. 예금	P-II-1	H-II-1	Y-II-1	A-II-1	R-II-1
	2. 투자	P-II-2	H-II-2	Y-II-2	A-II-2	R-II-2
III. 신용관리	1. 신용의 이해와 관리	P-III-1	H-III-1	Y-III-1	A-III-1	R-III-1
	2. 대출의 기초와 활용		H-III-2	Y-III-2	A-III-2	R-III-2
	3. 신용카드			Y-III-3	A-III-3	R-III-3
	4. 부채 관리		H-III-4	Y-III-4	A-III-4	R-III-4
IV. 위험관리	1. 위험의 개념과 관리	P-IV-1	H-IV-1	Y-IV-1	A-IV-1	R-IV-1
	2. 보험의 유형과 활용		H-IV-2	Y-IV-2	A-IV-2	R-IV-2
V. 금융활용	1. 금융거래의 기초	P-V-1	H-V-1	Y-V-1	A-V-1	R-V-1
	2. 디지털 금융	P-V-2	H-V-2	Y-V-2	A-V-2	R-V-2
	3. 금융교육 및 자문	P-V-3	H-V-3	Y-V-3	A-V-3	R-V-3
	4. 금융소비자보호의 이해	P-V-4	H-V-4	Y-V-4	A-V-4	R-V-4
	5. 금융사기예방	P-V-5	H-V-5	Y-V-5	A-V-5	R-V-5
VI. 생애재무설계	1. 생애재무설계의 개념과 필요성	P-VI-1	H-VI-1	Y-VI-1	A-VI-1	R-VI-1
	2. 창업 및 취업	P-VI-2	H-VI-2	Y-VI-2	A-VI-2	R-VI-2
	3. 학자금, 교육비		H-VI-3	Y-VI-3	A-VI-3	R-VI-3
	4. 주거 마련			Y-VI-4	A-VI-4	R-VI-4
	5. 노후 준비			Y-VI-5	A-VI-5	
	6. 노후 자금관리				A-VI-6	R-VI-6

출처: 김소연·김민정(2024)

□ 또한 중장기적으로 금융 리터러시 측정이 보다 정교화되고 지금보다 더 확대될 필요

-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가 전체적인 금융 리터러시와 별개의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것이 각각 측정되고 있는데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걸맞는 통합적인 금융 리터러시 측정 도구가 개발될 필요
- 또한 금융 리터러시 측정 문항 중 현재의 금융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항이 없는지, 또 실제 일상에서의 금융역량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검토하여 일부 문항의 개선이 필요
 - 실생활에서의 금융역량을 중심으로 금융 리터러시 측정 문항을 마련한 일본의 경우 금융 경험이 많은 고령자일수록 금융 지식 점수가 높아 금융 리터러시 측정 문항의 검토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²¹⁾
- 또한 현재 금융 이해력 조사가 2년 주기로 생산되고 전국 2,4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사 주기를 매년 단위로 단축하고 조사 대상도 확대할 것을 검토 필요
 - 디지털 역량 격차 실태조사와 같이 매년 단위로 실시하여 금융교육, 금융정책, 금융연구 등에서의 유의한 기반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
 - 또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70세 이상’이라는 조사 대상을 ‘70대’와 ‘8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초고령사회 대응에 참고 데이터를 확보

21) 특히 금융 지식 측정 문항 중 복리 계산 문제 등은 실생활에서의 금융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대표성이 있는지 검토 필요

[참고 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조사, 2023.3.
- 김성숙(2013),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 개발 및 예비조사, 2013.11.
- 김소연 · 김민정(2024), 국내 금융교육 현황 및 시사점, (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보험연구원 공동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24.2.15.
- 박소정(2024), 디지털 금융의 문제와 디지털 금융이해력 정책, (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보험연구원 공동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24.2.15.
- 배순영(2022), 5070시니어의 소비생활 스케치, 소비자정책동향 제128호, '22.12.
- 배순영 · 홍채은(2022),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소비자정책 대응 전략 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 양덕순(2022), 금융이해력이 소비자의 노후 재무대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8권 2호, p83-103, 2022.6.
- 오수진 · 이보한(2022), 2022 소비자역량지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 조혜진 · 김민정(2023), 은행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 금융접근성 소외문제와 해결방안, 제3차 시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 자료집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역량지수 2010/2014/2018/2022 보고서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2023), 「2023 OECD/INFE」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2022/2020/2018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 한정란(2023), 100세 장수시대 노년기 디지털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고령사회의 삶과 일 Vol.12, 2023 가을호
- 한진수(2023), 노인을 위한 금융교육 필요성과 과제, 고령사회의 삶과 일

Vol.12, 2023 가을호

- OECD/INFE(2022), National Strategies for Financial Education,
- OECD/INFE(2023),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Questionnaire and Guidance Notes for Conducting an Internationally Comparable Survey of Financial Literacy
- OECD/INFE(2023), 2023 International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
- 関田 静香(2023), 国民の資産形成と金融リテラシー,
- 金融経済教育推進会議(2023), 金融リテラシー・マップ, 「最低限身に付けるべき金融お金のリテラシー知識・判断力」の項目別・年齢層別スタンダード 2023年6月改訂版
- 금융감독원 누리집
- 통계청 누리집
-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 한국은행 누리집
- 행정안전부 누리집
- OECD INFE 누리집 <https://www.oecd.org/finance>
- 일본 소비자청 누리집 <http://www.caa.go.jp>
- 일본 금융경제교육기구 누리집 <https://www.j-flec.go.jp>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